스리랑카 불교, "테라와다 불교 보호" 요구

"종교 교육 감소는 범죄 급증과 연관" 강조

박영빈 객원기자

불교성지 지정 촉구 제안서 제출
정부 "불교 질서 확보 노력" 약속
힌두 강세 타밀 지역 반발 일기도


대통령에게 불교계의 건의를 전달하는 모습. 사진출처=타밀 가디언

스리랑카의 한 대형 불교단체가 스리랑카 대통령에게 "국내 및 국제적으로 테라와다 불교를 보호하고 사찰 건설지를 확보해 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련의 제안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16일 스리랑카의 '타밀 가디언'은 스리랑카 불교단체의 행보에 대해 보도했다.

스리랑카가 전국에 지부와 회원을 두고 있는 대형 불교단체 '전(全)실론 샤사나락샤카 발라 만달라야(Shasana rakshaka Bala Mandalaya)'의 스님들은 지난주 스리랑카 대통령 비서실에서 대통령 수석비서인 사만에카나야케에게 "종교에 대한 교육 감소와 사회범죄의 급증 사이에는 강력한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와 동시에 정부에 "불교사원 건설지를 확보하고 국내 및 국제적으로 테라와다 불교를 보호"할 것을 촉구하는 일련의 제안서를 제출했다.

제안서를 받은 에카나야케 수석비서는 "현재 스리랑카 정부는 헌법에 따라 불교를 옹호하고 보호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어 "지난 2월 대통령령으로 고고학적·역사적 의미가 있는 11개 사찰을 스리랑카 국가가 인정한 불교성지로 지정했다"면서 "스리랑카 내에서 불교적 질서를 보호하고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스님들이 제출한 제안서와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며 제안서가 스리랑카 라닐 위크레마싱헤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스리랑카 불교계에서 정부에 불교 보호와 사찰 토지 확보를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와 조치사항 중에 불교가 아닌 힌두교나 타 종교의 유적이나 사원이 포함되어 반발이 일고 있다. 앞서 성지로 지정된 11개의 사찰 중에 4개소는 힌두교가 강세인 타밀어권 지역에 있으며, 이미 오랫동안 힌두교인들과 함께 운영되던 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힌두교 사원에 속한 부지에 불법적으로 건설된 불교 사원과 불상이 비밀리에 개원식을 마치고 사찰로 지정되면서 힌두교도가 다수인 타밀족 사람들이 동일 부지인 힌두사원에 접근할 수 없게 되는 등의 문제가 일고 있다.

이번 제안서의 제출과 관련한 대통령 비서실의 응답에 대해 타밀족은 물론 불교계 일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타밀 가디언은 "2009년 물리바이칼 무력충돌이 끝난 이후 스리랑카 정부는 특히 '고고학'을 빙자하여 전통적인 타밀 지역을 불교화하려는 노력을 강화해 왔다. 그 결과, 비불교 유적지가 불교도들에 의해 점유되었으며, 이로인해 타밀족을 비롯한 비불교도들은 이러한 종교 및 문화 유적지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불교에 매료된 영국 성소수자들

불교 교리 속 참 나를 찾기 매료
비폭력·평등으로 박해 상처 치유


무니샤 유럽불교연합 부총재가 아내와 결혼 서약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BBC

지난 4월 21일 영국 주요 언론 'BBC'는 영국 내 성소수자들의 종교 현황과 그들을 불교로 이끈 이유에 대해 보도했다.

2021년 영국 통계청이 잉글랜드와 웨일스 내 16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영국인의 종교 현황' 결과에 따르면 영국 내 성소수자(LGBTQ,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렌스젠더, 퀴어 등) 130만 명 가운데 '불교'라고 응답한 비율이 7.3%로 가장 높았다. 무교(5.6%), 유대교(4.5%), 힌두교 (1.8%)가 뒤를 이었다. 해당 조사는 성적 지향성과 성 정체성에 대한 자발적 답변을 받은 최초의 조사다.

무니샤 유럽불교연합 부총재는 "대다수의 종교는 창조자, 심판자의 역할을 가진 절대자가 정립한 이분법적 젠더 관념에 기반한 특정한 견해를 가지고 성소수자를 노골적으로 비난하지만 불교는 절대자 개념이 없으며 덕행의 완성과 깨달음에 성취를 둔 불교 윤리관을 전파한다"면서 "특정 종교에서 죄악으로 멸시되던 성소수자들의 정체성이 불교 윤리의 핵심인 비폭력과 평등사상을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불자가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불교에 귀의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2017년 동성결혼을 한 무니샤 부총재는 1990년대 초 불교로 개종했다. 그는 "성소수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최악의 이성 교제가 있는가 하면 매우 사랑스럽고 유익한 이성교제가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김민재 객원기자

도난당한 日 불상, 옥션 낙찰자가 사찰로 반환

8월 도난 후 1월 옥션 올라
낙찰자 "환지본처에 큰만족"


도난 당한 불상을 넨부츠인 주지스님에게 전달하는 낙찰자. 사진출처=아사히 신문

일본 사찰 도난 불상을 인터넷 경매에서 사들인 한 낙찰자가 불상을 본래 사찰로 반환해 화제다. 4월 17일 일본의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신문' 등은 무사히 환지본처한 목조 아미타여래상에 대해 보도했다.

일본 나라현 가츠라기시에 소재한 사찰인 다이마데라(當麻寺)의 산내암자인 넨부츠인(念仏院)에서는 지난해 8~9월 경 본당에 봉안돼 있던 아미타여래좌상과 다문천왕상 2구가 도난당했다. 이중 아미타여래좌상은 13세기경에 조성된 수작으로 높이 38cm, 통견의 형식의 대의를 수하고 상품상생인(上生印)을 하고 있다.

넨부츠인의 주지인 카와나카 쿄쇼 스님은 "문화재가 많은 사찰이다 보니 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대책과 인식을 가지고 보호에 노력해 왔으나 이렇게 도난당할 줄은 몰랐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경찰과 스님에 따르면 도난 사실을 안 직후 본당 창문의 걸쇠가 파손된 것을 발견, 불상의 행방을 찾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가츠라기시 역사박물관이 제공한 불상의 세부사진 등을 자료로 도난당한 불상 중 아미타불상이 지난 1월 인터넷 옥션에 출품된 사실을 알게 됐고, 즉각 출품자를 찾았다. 출품자는 "해당 불상이 도난품인지 알지 못했으며 한 남성이 매각해 달라며 가지고 왔다"고 진술했다. 이에 불상을 가져온 80대 남성을 체포, 넨부츠인에서 불상을 훔쳤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남성은 "산속 깊이 있는 절들에서 불상을 훔쳐서 돈을 벌었다"고 말해 경찰은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함께 도난당한 다문천왕상의 행방을 찾고 있다.

또한 경찰은 불상을 낙찰받은 호키에이타씨에게 불상이 도난품임을 알리고 관련사정을 청취했다. 취미로 불상을 수집하는 호키씨는 경찰 측의 설명을 듣고서 조건 없이 불상을 넨부츠인에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다이마데라에서 열린 반환식에서 직접 카와나카 스님에게 불상을 전달한 호키씨는 "지금껏 수집한 불상 중에 손에 꼽히는 수작이라 떠나보내기가 조금 아쉽지만, 원래의 절로 돌아가는 것에 만족한다"고 이야기했다. 카와나카 스님은 호키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앞으로 도난방지와 문화재 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불상을 발견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던 카츠라기시 역사박물관 측도 "이번 사례를 교훈으로 다른 문화재들에 대한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中, 실크로드 마지막 거점서 불교 유적 발견

파키스탄서 중국 불교 전래 시사
측천무후가 세운 대운사 추정


모어 사원에서 출토된 석고 불두. 간다라 양식과 중국 양식이 결합됐다. 사진출처=중국일보

4월 18일 중국 일간 영자신문 '중국일보'는 카슈가르 모어 사원 유적 발굴 소식을 전했다. 카슈가르는 중국에서 서남아시아로 통하는 관문이자 고대 실크로드의 중요한 거점이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카슈가르 모어 사원 유적지에는 두 개의 탑만이 덩그러니 놓여있었다. 현지 주민들은 이들을 위구르어로 '취미'를 뜻하는 '모어'(mo'er)라고 부르며 고대 주거지로 추측할 뿐이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4차례에 걸친 발굴 과정에서 매몰된 벽과 정교한 불상, 도자기와 나무 조각, 돌, 청동과 뼈 유물, 비단과 삼베로 만든 직물 잔해, 조각상 파편 등 1만여 점의 귀중한 유물이 출토됐다.

고고학자들은 큰법당이 측천무후가 설립한 대운사였을 것이라고 추론한다.

샤오 교수는 "건축 및 불상 양식과 출토 유물은 기원전 1세기경 신장에 불교가 전파된 시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사적 기록을 종합해 봤을 때 늦어도 2세기 초에 간다라 지역(現 파키스탄)에서 카슈가르로 카슈가르에서 중국 중심으로 불교가 전파됐고 그 과정에서 지역의 전통문화로 발전, 점차 중국 불교가 됐다"면서 "그 결과 3세기에 시작된 모어 사원은 중국의 초기 불교 사원의 핵심이 됐다"고 말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최고급제품 & 착한가격 & 친절상담 & 빠른배송
동호불교물류센터
전국 최대규모 500평 매장에 불교용품의 모든것
다양한 초파일 용품 할인행사중!! 상시대기
최고급 제품&착한가격&친절상담&빠른배송
전품목 10%~30%/승복, 가방 50%/가구, 병풍 30% 할인

최고급 합장주 할인
합장주 ····· 100개 55,000원
어린이합장주 ····· 100개 50,000원

사월초파일 제 품 할 인
인등 신제품 출시, 주문제작 가능
충전 전기초 출시 (1회 충전시 30일 지속, 5종류)
반야심경/산신/용왕/연꽃 일부품목은 제외됩니다 85,000원

- 보시 용품 염줄
- 각종 연등 탄생불 관욕단
- 각종 미니 만월등 100개 ····· 140,000원
- 만월등 사업등
- 연잎 리본
- 방수전선 전구엘리드국산
- 등 승강기 설치

2024 초파일 미리 준비하세요

삼베, 검정삼베 개당 2,000원 / 50개 100,000원
길베, 소창 개당 2,000원
오색종이 개당 450원

국산초
밀대 50개 65,000원
돈타래 40개 75,000원
원백 20개 75,000원

수입양초
밀대 50개 60,000원
돈타래 40개 70,000원
원백 20개 70,000원

식물성 양초 - 그을음 없는 최상급 (흰색, 노랑색 가격동일)
7일초 팝초 20개, 노란색 최상급 20개
소진시까지 ····· 65,000원
5일초 24개 ····· 70,000원
3일초 40개 ····· 70,000원
1일초 90개 ····· 80,000원
15일초 12개 ····· 100,000원
대량구매시 추가할인

흰색 식물성 양초 B급 (※반품 안됨※)
7일, 5일, 3일 ····· 50,000원
15일 ····· 70,000원

천왕배 오색길배-최상급
개당 4,500원 / 30개 135,000원

삼베 삼제풀이 100개 60,000원
일년 신수맞이 100장 120,000원

대통부 6,000원
삼베옷 6,000원
속옷 남자 여자 각각 100장 이상 가격 15만원
베네저고리 1,500원 50장 이상 가격 75,000원

파라핀 오일 1BOX(12개) 65,000원
부정풀이 1BOX(100개) 100,000원

불상 7치 500개 12.000원 / 1000개 11.000원

※칠보 개금 할인 (기존 불상 가능, 3자 기준 좌포함 220만원)
※불상 조각 조성 (소불 500불 이상 1불 당 12,000원, 1000불 이상 11,000원)

부적 파라핀 입춘 대길 수제부적 인쇄부적 할인행사 대방출!!

동호불교용품물류센터는 모든 불교 용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동호불교 검색 NAVER 에 동호불교를 검색하세요.

대량 구매 시 전화 문의 054-762-8200 / 010-9748-3366 ■ 계좌번호 : 농협 010-2082-2100-89 (임건순) ■ 찾아오시는길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공정길 55-36